

##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the 'Octagonal Three-step' Lotus Pedestal in United Silla

---

저자 (Authors)	임영애 Lim, Young-ae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38</a> , 2011.8, 279-306(28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38</a> , 2011.8, 279-306(28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9854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98544</a>
APA Style	임영애 (2011).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신라문화, 38, 279-30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6:1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수용과 전개

임 영 애\*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8세기 후반~9세기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변모양상 |
| II. 중국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유입과 정착 | IV. 맺음말 -불상과 대좌의 관계성-             |

[국문초록]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시작은 석굴암 본존상 대좌이다. 석굴암 본존에서 시작된 8세기 중엽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석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 시기 중대석은 각 면의 가로와 세로가 거의 비슷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이룬다. 유사한 특징을 지닌 8세기 중엽경의 보리사석불좌상, 766년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좌상 역시 같은 범주에 들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후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불상의 대좌는 중대의 높이가 확연히 높아지고, 간혹 중대 안상이 새겨지거나, 안상 안에 각종 부조가 등장한다. 이후 9세기 중엽부터는 중대 높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중대와 하대 사이에 팔각의 고임석이 덧붙여지면서 앞 시기의 대좌와 구분 지워진다. 아울러 하대에서 분리된 하대받침의 높이가 높아지고, 역시 안상 안에 각종 부조가 새겨진다. 동화사, 도피안사, 취서사의 불좌상 등을 대표 예로 꼽을 수 있다. 9세기 중엽에 정형화된 이러한 대좌형식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고려 전기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진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좌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높이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대좌의 절대적인 높이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불상 대비 대좌의 높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통일신라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 때 대좌의 높이를 높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중대의 높이이다. 중대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중대 면석은 정사각형에서 점차 위아래가 긴 직사각형으로 변해갔으며, 중대와 하대 사이의 고임석을 둔다든지, 하대석과 그 아래 받침을 별석으로 제작하면서 대좌의 장식성이 강해지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좌상의 대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 및 양식이 달라지며, 이러한 변화는 불상양식의 흐름과 대체로 일치한다. 불상의 대좌는 어쩌면 불상보다 더 정확히 시대양식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은 불상 대좌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변화의 대체적인 윤곽잡기를 통해 향후 필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신라 불교조각 연구의 기초 작업 중 하나로 삼으려 하였으며,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광배나 대좌의 중요성을 점검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는 의도로 쓰인 것이다.

[영문초록] The beginning of ‘octagonal three-step’ lotus pedestal was the pedestal of the main statue of Seokguram(石窟庵). The most distinct feature of ‘octagonal three-step’ lotus pedestal in the middle 8th century, which began with the main statue of Seokguram, is that the height of the middle pedestal is relatively low. Each side of the middle pedestal in this period had an almost square form in which its width and length are almost the same. A seated stone statue of Buddha in temple Borisa(菩提寺) in the middle 8th century and seated statue of Viroçana Buddha in temple Seoknamamsa(石南巖寺) in 766 fall within this same category. Interestingly, since then, the pedestal of Buddha images chronologized into the late 8th century and the early 9th century had strikingly heightened the middle pedestal, and ansang(眼象) of the middle pedestal was carved or various embossed works appeared in ansang. Since the middle 9th century, though there was no change in the height of the middle pedestal, the distinction from the earlier pedestal disappeared as an octagonal stone was added. Moreover, the socle of bottom pedestal, separated from the bottom pedestal, was heightened, and various embossed works were also carved in ansang.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seated Buddha images in temple Donghwasa(桐華寺), temple Dopiansa(到彼岸寺), and temple Chwiseosa(鷺棲寺). Such a form of the pedestal, established in the middle 9th century, persisted for a pretty long period of times without great changes until the middle Goryeo age.

The greatest change in the pedestal along the flow of time, as you know, is the height. Of course, needless to say, the height here is not an absolute height. The height of the pedestal, compared to the Buddha image, had increased over time, which was the most noticeable feature of ‘octagonal three-step’ lotus pedestal in United Silla. Here, the decisive factor affecting the increased height of the pedestal was the height of the middle pedestal. As the height of the middle pedestal increased, the square form of the middle pedestal was gradually changed into the rectangular form, and changes over time include added octagonal stone between the middle pedestal and the bottom pedestal and the enhancement of the decoration of the pedestal with the bottom pedestal stone and its pedestal produced separately. As is discussed in this thesis, the form and style of the seated statue of Buddha pedestal are changed and this change usually agrees with the trend of the style of the Buddha image. In a sense, the statue of Buddha pedestal can be said to reflect contemporary styles more accurately than the Buddha image. I have tried to make this thesis as part of my pursued basic work in the research of Buddhist sculpture in United Silla through a rough outline of the changes in Buddha’s pedestal. I intend with this thesis to review the importance of the Buddhistic halo or the pedestal, which have been away from researchers’

interest so far, and to remind their significance.

[주제어] 삼단팔각 연화대좌(三段八角 蓮華臺座, octagon-shaped three-steps lotus pedestal), 팔각(八角, eight angles), 황복사(皇福寺, Hwangbok Temple), 석굴암(石窟庵, Seokguram)

## I. 머리말

불교조각의 대좌는 위에 놓인 상의 조건에 따라 모양도 크기도 형태도 달라진다. 어떤 종류의 상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연꽃을 대좌로 삼을 수도 있고, 동물 혹은 바위를 대좌로 삼기도 한다. 또 입상인지 좌상인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당연히 좌상의 대좌는 대좌의 높이가 높고, 입상의 대좌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다.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삼단이라는 구성의 특성상 대좌의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다.<sup>1)</sup> 이에 따라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주로 불좌상의 대좌로 애용되었으며, 중대가 축소되거나 생략된 불입상의 대좌와는 서로 계통을 달리한다.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통일신라시대 불좌상에는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되었다. 그것도 석불의 대좌로 주로 애용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수없이 많은 소형 금동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삼단팔각 연화대좌’를 갖춘 금동불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짐작컨대 통일신라 금동불의 경우 제작의 편리성과 기능의 측면에서 좌상보다는 입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sup>2)</sup> 통일신라 금동불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입상은 주로 양련의 상대와 복련의 하대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간혹 중대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높이가 아주 낮아 석불의 ‘삼단팔각 연화대좌’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기는 어렵다.<sup>3)</sup>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통일

1) 이 때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대좌를 일컫는다. 즉 상대, 중대, 하대의 삼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중대가 팔각기둥 모양이며, 상대와 하대는 양련과 복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형식의 대좌를 ‘팔각원당형대좌’라고 부르기도 한다(문명대, 『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언, 1999, p. 127).

2) 작은 금동불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기능’의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마련하려 한다.

3) 불상은 재료에 따라 기능의 차이는 물론이고 도상이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제작비용의 차이는 크기 차이를 동반한다. 그 결과 소형 금동불은 개인용 護持佛로, 규모가 큰 석불은 법당의 예배용으로 주로 쓰였다. 또 재료의 속성에 따른 제작기술의 차이가 형식

신라시대 석조불상, 그 중에서도 불좌상의 대좌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sup>4)</sup>

불상의 대좌는 불교미술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었다.<sup>5)</sup> 불상의 구성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불상연구에 비해 소외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이라면 예외 없이 애용되었던 ‘삼단팔각’ 연화대좌에 관한 것이다. 삼국시대 불상의 대좌 중에는 ‘삼단팔각 연화대좌’가 없다. 거의 대부분 1단의 사각대좌이거나 1단의 연꽃대좌이다. 삼국시대 1단이던 대좌가 언제부터 3단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 또 중국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통일신라 8~9세기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며, 중국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국은 과연 대좌라고 하는 것이 불상 양식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가? 다시 말해 불상의 형식 및 양식의 변화에 따라 대좌도 일정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는지, 아울러 그 상관관계는 또 어떠한지와 같은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한 논의가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

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석불은 좌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금동불은 입상이 주를 이룬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성은 있었겠지만 이들을 같은 범주에 두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 4) 물론 706년경 傳 황복사 금동아미타불좌상이나, 865년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같이 기년명이 있는 불좌상은 비록 석불은 아니지만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마애불은 남산 삼릉계 마애불좌상처럼 2단의 양련과 복련만으로 이루어진 예가 많으며, ‘삼단팔각’ 연화대좌를 지닌 불좌상은 동화사 입구의 마애불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마애불 또한 이 글의 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 5) 한국 불상의 대좌에 관해서는 김화영, 『한국 불상대좌형식의 연구(2)』, 『史學志』 Vol.4 No.1, 1970, pp. 137~170; 김화영, 『한국불상 대좌형식의 연구 -금동불을 중심으로』, 『이홍직박사회갑기념논총』, 1989, pp. 609~630; 朴亨國, 『日本における七獅子蓮華座の受容と變容』, 『佛敎藝術』 228, 1996, pp. 15~49; 洪大韓, 『統一新羅 石佛臺座의 造形研究 I』, 『文化史學』 19, 2003, pp. 125~175; 洪大韓, 『統一新羅 石佛臺座의 造形研究 II』, 『文化史學』 21, 2004, pp. 137~170을 비롯한 몇 편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이 있다. 이처럼 대좌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논고가 있기는 하지만 석불좌상의 대좌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김화영선생의 논문을 포함하여 세편에 불과하다. 이 중 이 글의 취지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논문으로는 김화영선생의 『한국 불상대좌형식의 연구(2)』를 꼽을 수 있다. 김화영선생은 이 글에서 팔각대좌를 4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1. 중대석 각 면에 兩隅柱만 刻出된 것이 있고 혹은 안상이 조각된 것도 있으며, 2. 兩 우주 사이에 천인상이나 花紋 및 기타 장식문양 등이 조각된 것, 3. 안상 안에 조각이 있는 것, 4. 중대가 조각으로 가득 찬 것(김화영, 위의 글, pp. 150~151).

## II. 중국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통일신라 유입과 정착

삼국시대 불좌상의 대좌는 기본적으로 1단이 주류이다.<sup>6)</sup> 1단의 사각대좌이거나 혹은 1단의 복련 연화대좌이다. 사각대좌의 대표적인 예로는 널리 알려진 뚝섬출토 금동불좌상이나 부여 신리출토 금동불좌상, 군수리 목탑 출토 불좌상 등을 떠올릴 수 있다.<sup>7)</sup> 물론 기본형은 사각이면서도 3단의 구성을 지닌 것도 있다. 예컨대 장천리 1호분의 불좌상은 상·중·하대 모두 기본형이 사각이면서 3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중 상대와 하대는 폭이 넓고, 중대는 폭이 좁다. 4~5세기 중국의 예로 판단해 보면 3단의 사각대좌는 1단의 사각대좌보다 늦게 출현한다.<sup>8)</sup>

장천리 1호분 불좌상을 제외하고는 1단으로 이루어져 있던 삼국시대 불좌상의 대좌는 8세기 초 ‘3단’의 ‘연화대좌’ 형식으로 바뀐다. 이 때 처음으로 등장한 ‘3단’의 연화대좌는 ‘3단’이면서 연화대좌이기는 하지만 중대의 평면이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팔각이 아니라 원형이어서 ‘삼단원형’ 팔각대좌라 칭한다. ‘삼단원형’ 연화대좌는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전초 형식이다. 흥미롭게도 신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삼단원형’ 연화대좌는 바로 傳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기 안에서 발견된 높이 12.2cm의 아미타불좌상(이하 傳 황복사 아미타불좌상)의 대좌이다(도 1, 2)<sup>9)</sup>. 706년경에 조성되었을 이 불좌상의 대좌는 상대, 중대, 하대의 삼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傳 황복사 아미타불좌상의 대좌는 불의로 덮여 있어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노출된 뒷면으로 살펴보면 상대 양련은 2줄로 이루어져 있고 1단의 하대 복련은 원형의 단 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 상의 대좌는 상대와 하

6) 남겨진 자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있는 중국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대차는 없다고 판단된다.

7) 광동석, 『뚝섬출토 금동선정인여래좌상의 국적 문제-동경예술대학소장 금동여래좌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고역사학지』 15, 2000, p. 438 ; 김리나, 『백제초기 불상양식의 성립과 중국불상』, 『백제연구총서』 3, 1993, pp. 231~265.

8) 대표 예로 宋 元嘉14年(437), 宋 元嘉28年(451) 금동불좌상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필자는 장천리 1호분의 불좌상을 5세기 중~후반의 작품으로 판단한다. 물론 이는 대좌의 형태만을 고려하여 판단한 경우이다.

9) 삼층석탑이 있는 이곳이 황복사인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王福’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편이 발견되었고(황수영, 『慶州 傳皇福寺址의 諸問題』, 『고고미술』 97, 1968, p. 431), 금동사리함에 기록되어 있는 석탑봉안 목적이나 동반 유물을 통해 보아도 황복사지 추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0) 傳 황복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기와 불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한정호, 『

대가 연꽃으로 구성된 ‘삼단’이기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대는 팔각이 아닌 원형이다. 하대 역시 기본형이 원형이어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삼단팔각’ 연화대좌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傳 황복사 불좌상의 대좌는 상·중·하대로 구성된 ‘3단’ 연화대좌 중 가장 이른 예로 이보다 앞선 예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다.

‘삼단원형’ 연화대좌는 중국에서는 이미 6세기 중엽부터 제작되었다. 중국에 현전하는 ‘삼단원형’ 연화대좌의 가장 이른 기년 불좌상은 북제 天保 8年(557)의 삼존불감상이다(도 3). 傳 황복사 대좌와는 150여 년의 시기차이가 있지만 부분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식이다. 차이가 있다면 중대의 횡대 유무정도이며, 중대의 높이는 두 상 모두 전체 대좌높이의 1/3정도로 높지 않다. 중대가 원형인 ‘삼단원형’ 연화대좌는 수대까지 지속되다가 7세기 전반이 되면 ‘삼단팔각’ 연화대좌로 모양이 바뀐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이미 6세기 중엽에 시작되어 7세기 초까지 지속하였던 ‘삼단원형’ 연화대좌가 통일신라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8세기 초 傳 황복사 아미타불좌상이다. 잘 알려진 대로 傳 황복사 삼층석탑은 692년 효소왕이 신문왕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고, 이후 706년 성덕왕이 다시 신목태후와 효소왕을 기리기 위해 사리함 속에 아미타상과 竹簡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납입하였다.<sup>11)</sup> 흥미로운 사실은 측천무후 말년, 즉 704년에 彌陀山과 法藏 등이 번역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706년 5월 30일에 통일신라 왕실발원 석탑에 납입하였다는 점이다.<sup>12)</sup> 번역된 후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통일신라에 전해져 왕실발원 석

慶州 九皇洞 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 『미술사논단』 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pp. 61~88; 주수완, 『皇福寺 全金佛立像 연구』, 『불교미술사학』 4, 2006, pp. 39~65; 주경미, 『한국불사리장엄에 있어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의의』, 『불교미술사학』 2, 2004, pp. 176~179; 김복순, 『義湘과 皇福寺』,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pp. 145~159; 淺井和春, 『皇福寺址三層石塔發見の二体の金銅佛像』, 『佛教藝術』 188, 1990, p. 90; 황수영, 앞 글, pp. 430~432; 김재원, 『경주 구황동 석탑 출토 사리기 및 불상』, 『한국과 중국의 고고미술』, 문예출판사, 2000, pp. 887~899; 이홍직, 『慶州 狼山東麓 三層石塔內 發見品』, 『韓國古文化論及』, 을유문화사, 1954, pp. 37~59; 梅原未治, 『韓國慶州皇福寺塔發見の舍利容器』, 『美術研究』 156, 1950.

11) “神文大王(中略) 乘天(中略) 建立三層石塔” 佛舍利 4果와 6치 크기의 순금제 미타상純金製 彌陀像 1구軀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1권을 석탑의 2층 내에 안치한다(정병삼,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pp. 346~350). 중국과 낙랑을 제외하고는 죽간의 사례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통일신라에서 필사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들여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탑에 아미타불좌상과 함께 넣어졌다는 사실은 당시 당과 신라의 교류가 얼마나 긴밀했는지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703년에 번역되고 이듬해인 704년에 신라에 들어온 『금광명경최승왕경』도 마찬가지이다.<sup>13)</sup> 통일신라는 705년에는 3월과 9월 두 차례, 706년에는 4월, 8월 10월 세 차례 당으로 사람을 보냈다.<sup>14)</sup> 傳 황복사 삼층석탑의 사리기는 706년 5월 30일에 납입하였으므로, 704년 『무구정경』이 번역된 이후 705년 3월과 9월, 706년 4월 중 어느 때인가 『무구정광다라니경』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보면 적어도 7세기 후반~8세기 전반이라는 시기에 당 문물의 통일신라 유입 속도를 짐작케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삼단원형’ 연화대좌이다. 특히 황복사 成典은 왕실이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복처였고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국가의례의 거행장소였다는 최근의 견해를 상기하면 傳 황복사 삼층석탑에서 최초의 ‘3단’ 연화대좌를 갖춘 불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매우 자연스럽다.<sup>15)</sup>

원형평면의 중대에 뒤이어 등장한 것이 팔각의 중대를 지닌 ‘삼단팔각’ 연화대좌이다. 제작연대가 분명한 ‘삼단팔각’ 연화대좌 중 현재 남겨진 가장 이른 예는 석굴암 본존의 대좌이다(도 4). 물론 석굴암 본존의 대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단팔각’ 연화대좌와는 모양이 약간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중대에 있는데, 석굴암 본존 대좌의 중대는 팔각기둥이 중앙에 세우고, 그 팔각기둥의 모서리마다 별석으로 隅柱를 각1개씩 세우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투각과 같은 효과를 창출해 내어 입체적으로 보인다. 석굴암 본존 대좌는 중대는 새롭게 바뀌었지만 하대는 여전히 평면이 팔각이 아닌 원형이다.<sup>16)</sup>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이처럼 중대의 八方에 별도의 기둥을 세운 형식에서 시작한다.<sup>17)</sup> 이러한 형식 역시 6세기 후반 북제 석조불좌상

12)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원문은 T1024 19:717c~721b(T는 『大正新修大藏經』의 수록번호이며, 그 뒤는 권:쪽 표시이다)에서 확인할 것.

13) 『三國史記』 제8권 성덕왕 3년 3월.

14) 『三國史記』 제8권 성덕왕 4년, 5년.

15) 황복사의 경우 『삼국사기』 직관지에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황복사 비편을 분석하여 효소~성덕왕대 황복사 성전이 존재하였다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윤선대, 『신라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2000, pp. 5~15).

16) 755년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의 대좌 역시 하대 평면이 원형이어서 흥미롭게도 하대의 평면이 원형인 예는 706년 傳 황복사 아미타불좌상, 751년 석굴암 본존상, 755년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 8세기 중엽경 굴불사지 남면 불입상인데, 모두 8세기 초~중엽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단선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대체로 하대 평면이 원형인 예가 팔각보다 앞선 형식으로 판단된다.

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이 불좌상 중대의 八方에는 여덟 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내부의 팔각기둥과 함께 입체적으로 조형되었다(도 5). 또 다른 하버드 새클러 미술관 소장 복제 석조불좌상은 원형 중대의 八方에 여덟 개의 마디가 있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면으로 처리하였다(도 6) 이를 통해 팔각의 중대는 처음부터 팔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원형중대 팔방에 여덟 개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그 시작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18)</sup> 중대에 여덟 개의 기둥을 따로 세우는 다소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중대는 곧 우주를 모서리마다 模刻하는 형식으로 대체된다.

이후 중국의 7~8세기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팔각기둥에 우주를 모각하는 형식이 자리를 잡고, 주류가 된다. 예를 들면 永徽元年銘(650) 삼존불좌상, 咸亨3年(672)銘 석불좌상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형식적인 隅柱를 模刻한 예가 주류이지만, 마치 창문을 낸 것처럼 입체적으로 팔방에 우주를 세운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산서성 芮城縣 風陵渡東章에서 출토되어 현재 예성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3구의 석불 중 1구가 그것인데, 이 상의 대좌에는 원래 天寶 4年(745)년의 명문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현재는 명문을 알아볼 수 없다(도 7).<sup>19)</sup> 이처럼 원통형 기둥의 팔방에 각각 隅柱를 세워 입체적으로 표현한 대좌는 석굴암 본존의 대좌와 동일한 형식이며, 이를 통해서도 석굴암 본존 대좌가 8세기 중엽 중국 대좌와 관련 아래 형성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중대의 여덟 개 기둥 안의 중심기둥이 예성현의 예는 원통기둥모양이라면, 석굴암은 팔각기둥이라는 점이지만 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처럼 중국에서 이미 6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삼단원형’ 혹은 ‘삼단팔각’의 연화대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불좌상의 대좌로 쓰였다. 하지만 불입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6세기에는 ‘삼단’ 연화대좌는 크게 주목되지 않다가, 불좌상이 주종을 이루는 7~8세기이후 본격적으로 ‘삼단원형’ 혹은 ‘삼단팔각’ 연화대좌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이 8세기 초라는 시기에 비로소 통일신라에서 가장 이른 ‘삼단원형’ 연화대좌가 등장하게 된 이

- 
- 17) 이 때 ‘팔’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고대 중국의 보편적 상징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곤륜산 이미지 형성에도, 고대 각종 제단에도 ‘팔’에 대한 관념이 투영되어 있음을 살펴본 논고로는 임영애, 『곤륜산, 수미산 그리고 삼단팔각 연화대좌 -삼단팔각 연화대좌에 담긴 상징』(『강좌미술사』 34, 2010, pp. 9~32)이 있다.
- 18)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곤륜산 이미지 → 수미산 이미지 → 삼단팔각 연화대좌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팔각은 중국 고대 보편적 상징체계를 인식하고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임영애, 위의 글, 2010, pp. 26~27.
- 19) 『宮廷の榮華-唐の女帝 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東京國立博物館, 1998~1999, p. 36.

유이다.

7~8세기 중국 불좌상의 대좌는 산서성 예성현의 석조불좌상이나 석굴암 대좌처럼 중대에 우주를 따로 세워 입체적으로 표현한 예도 있지만, 역시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팔각기둥만을 중대로 삼은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관13년(639) 中書舍人 馬周가 조성한 석조불좌상, 산서성 예성현 불좌상 중 703년 및 710년명을 비롯하여 7~8세기 당대의 수많은 불좌상이 동일한 형식이다(도 8). 6세기 삼단팔각 연화대좌와의 차이점이라면 상현좌가 다수이며, 복련의 하대석 역시 팔각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6세기 후반 여덟 개의 기둥을 세우면서 시작된 중대의 팔각 평면은 이후 장식이 없는 팔각기둥의 형태로 정형화되며, 오랜 기간 동안 불좌상의 대좌 중 하나의 형식으로 애용된다.

통일신라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거의 불좌상의 대좌로 애용되고 있지만 몇몇 불입상에도 보인다. 굴불사지 사방불의 남면 불입상이 그러한데, 석굴암 본존의 대좌와 마찬가지로 상대와 하대가 원형 평면이며, 중대만 팔각이다(도 9). 석굴암 본존 대좌와 차이점은 팔각중대에 우주석을 따로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sup>20)</sup> 이로써 중대는 팔각이지만, 하대는 여전히 원형인 굴불사지 남면 불입상은 이후 등장하는 766년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보다 앞서 조성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8세기 불상으로 대좌 하대가 원형평면인 경우는 이처럼 傳 황복사 불좌상, 석굴암 본존, 굴불사지 남면 불입상을 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삼단팔각연화대좌의 하대가 원형평면인 예가 팔각평면에 앞서 조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중국 팔각연화대좌와 궤를 같이 한다.

중대뿐만 아니라 하대도 팔각평면으로 제작된 가장 이른 기년작은 766년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도 10). 대체로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팔각평면의 하대는 이후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 잡는다. 즉 원형평면의 상대, 팔각평면의 중대와 하대의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가장 애용되던 대좌의 형태이다. 바로 766년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형식이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전형 예라고 할 수 있으며, 758년경 갈항사 석불좌상 역시 하대가 팔각이어서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갈항사 석불좌상은 현재 상대와 중대를 잃었고 하대만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석남암사 석조비로

20) 굴불사지 남면의 삼단팔각 연화대좌를 사면석불과 동시기의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굴불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6, pp. 52~53) 대좌의 형태로 고려해 보면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굴불사지 사면석불에 관해서는 김리나, 『굴불사지 사면석불에 대하여』(『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97, pp. 239~268)을 참조.

자나불좌상과 같은 형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진에서 보이는 갈항사 석불좌상의 대좌는 원래 팔각연화대좌의 하대석을 상대로 삼아 불좌상을 안치해 놓은 것인데, 커다란 복판의 연잎이 8개이며, 기본형은 팔각이다.<sup>21)</sup> 석남암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과 동일한 형식의 대좌는 경주 남산 보리사 석불좌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도 11). 역시 팔각중대에 각 모서리마다 우주를 모각하고 있으며 하대의 평면이 팔각이다. 대체로 8세기 중엽 무렵부터 전형 형식을 갖춘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이후 고려시대 전기까지 형식의 큰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유지된다.

### Ⅲ. 8세기 후반~9세기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변모양상

잘 알려진 대로 통일신라 불교조각 중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상은 9세기 중~후반에 집중되어 있다. 기년명 불좌상들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숫자는 많지 않아 겨우 4점에 불과하다. 잘 알려진 대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4점의 불상은 859년 보림사 비로자나불좌상, 863년경 동화사 비로자나불좌상, 865년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좌상, 867년경 취서사 비로자나불좌상이다. 그 중에서 2점은 佛身에 명문이 있지만 나머지 2점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성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은 예외 없이 비로자나불좌상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중 3점이 대좌를 온전히 갖추고 있어 대좌의 편년설정에 기준을 제공한다.<sup>22)</sup> 반면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의 불좌상 중에서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상은 없다. 물론 불입상은 두 예 정도 보고되어 있지만 불좌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어 대좌의 편년설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sup>23)</sup>

앞서 이야기한대로 8세기 중엽 무렵부터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전형 형식을 갖추었다. 8세기 중엽의 대좌와 이후 8세기 후반~9세기 대좌와의 가장 큰 차이는 불신 대 대좌 높이의 비율이다.<sup>24)</sup> 8세기 중엽의 대좌는 중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21) 문명대, 『김천 갈항사 석불상』 『원음과 고전미』 한국의 불상조각 2, 예경, 2003, pp. 363~370.  
 22) 이들 대좌의 개별 형식에 관해서는 문명대, 『신라 하대 편년 비로자나불상』 『원음과 고전미, 통일신라 불교조각사 연구(上)』, 예경, 2003, pp. 234~237 참조.  
 23)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의 절대연대를 지닌 예로 799년 홍성 용봉사마애불, 801년 방어산 마애불, 810년 창녕 인양사 碑像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불입상이거나 僧像이며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삼단팔각’ 연화대좌를 갖춘 석불좌상이 아니다.

낮아 상·중·하대의 높이가 대략 1:1:1의 비율을 보인다. 석굴암 대좌의 경우도 상대의 높이가 48.5cm, 중대의 높이가 50.3cm로, 상대와 중대의 높이가 거의 같다. 중대 면석도 높이와 너비가 거의 같아 정사각형에 가깝다(도 4). 반면 대좌의 조성 시기가 늦을수록, 즉 8세기 후반에서 9세기로 넘어갈수록 점차 중대의 높이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중대 면석은 위아래가 긴 직사각형을 띤다. 간혹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안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8세기 후반의 영지석불좌상이 이에 해당한다(도 12). 이처럼 중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영지석불좌상처럼 안상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직 팔각 면석에 각종 부조가 등장하지는 않는다.<sup>25)</sup>

9세기 전반이 되면 더욱 높아진 중대를 확인할 수 있다(표 1, 도 19 참조). 상·중·하대의 비율이 1:2:1이 될 만큼 중대가 확연히 높아지면서 중대 면석의 직사각형의 길이도 더욱 길어졌다.<sup>26)</sup> 이를테면 9세기 전반의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의 삼릉계 석불좌상, 홍천 물걸리사지 석불좌상군, 부석사 석불좌상 등을 대표 예로 꼽을 수 있다. 이 중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은 팔각중대 각 모서리에 우주를 새기지 않았다(도 13). 단지 팔각의 각 면마다 안상을 큼직하게 새겨 넣고 있어 우주를 모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각 면의 가로 36.5cm가 세로 60cm에 비해 좁아서 역시 중대 면석의 길이가 길다.<sup>27)</sup> 관룡사 용

24) 이하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대좌의 높이는 모두 불신 높이에 비례한 대좌의 높이를 말한다.

25) 중대에 안상이 새겨지는 것은 9세기 전반이나 되어야 나타난다고 보기도 하지만(김화영, 위의 글, p. 156), 대좌 중대에 안상이 새겨져 있는 영지석불좌상의 경우 불좌상의 양식이나 대좌 중대의 높이를 고려할 때 8세기 후반 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26) 중대뿐만 아니라 상대의 두께도 전대에 비해 높아지지만(문명대, 『신라 하대 편년 비로자나불상』, 앞의 책, pp. 234~237) 하대 복련석의 높이는 큰 차이가 없다.

27)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에 관해서는 최성은,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소고』(『신라사학보』 16, 2009, pp. 247~249)를 참조 ; 한편 관룡사에는 용선대뿐만 아니라 약사전에도 석불좌상이 있다. 1996년 이 석불좌상의 대좌 중대 안상에 ‘大曆七年壬子’ 즉 772년에 제작된 미륵불이라는 명문이 있음이 알려졌다(하일식, 『창녕 관룡사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寺蹟記>』, 『한국고대사연구』 12, 1997.10.) 이 불상에 관해서는 1928년 藤島亥治郎가 직접 실측도를 그렸고, 이에 관한 상세한 기술을 남기고 있다(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景仁文化社, 1982), p. 223). 그런데 그의 기술 어디에도 명문에 관한 언급은 없다. 약사전 석불좌상의 명문은 용선대 석불좌상의 명문과 달리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중대 안상에 명문이 가득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글씨가 굵고 비교적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1928년 당시 명문이 있었다면 꼼꼼히 실측하고, 직접 실측도를 그린 藤島亥治郎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적어도 772년의 명문을 가진 관룡사 약사전 석불

선대 석불좌상의 경우 긴 중대에 안상만 있고 각종 부조는 새겨져 있지 않지만, 짧은 목, 두툼한 어깨와 무릎, 크고 평평직한 육계의 표현 등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삼릉계 석불좌상과 같은 범주로 이해할 수 있겠다(도 14).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의 대좌처럼 부조를 새기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시기 대좌의 길어진 중대 면석에는 향로, 천부상 등 각종 조각이 부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신높이: 대좌높이
석굴암 본존 *	751년	1 : 0.44
미륵곡(보리사) 석불좌상 *	8세기 중엽	1 : 0.58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좌상 *	766년	1 : 0.61
영지 석불좌상 *	8세기 후반	1 : 0.80
삼릉계 석불좌상(국립중앙박) *	9세기 전반	1 : 0.92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좌상	863년	1 : 0.89
취서사 비로자나불좌상	867년	1 : 0.89

<표 1>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불신높이 : 대좌높이 비율  
 (\*는 수치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2010, p. 143 참조)

이후 9세기 중엽이 되면 대좌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겪는다. 가장 큰 차이는 앞 시기 대좌의 특징에 고임석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고임석은 별도의 석재로 따로 제작하여 중대와 하대 사이, 즉 하대의 복련 위에 얹혀 중대를 받친다(도 15). 이 시기의 기년명 불좌상들이 모두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전 시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863년 동화사 석불좌상의 경우 중대를 사자와 구름무늬로 가득 채운 특별한 대좌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역시 별도의 고임석을 두고 있어 이 고임석이 9세기 중엽이전의 ‘삼단팔각’ 연화대좌와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임을 알려준다(도 16). 이렇게 별석의 고임석이 추가된 것은 석탑에서 탑신과 기단갑석 사이에 끼워지는 고임석과 상통한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별석받침이 불탑에서 처음 등장하는 시기 역시 통일신라 후기여서 타당성있는 추정이라 여겨진다.<sup>28)</sup>

이 시기 대좌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하대 복련 아래에 별석으로 대좌받침을 마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의 경우 하대 복련 아래 대좌받침을

좌상의 명문은 후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28) 김화영, 위의 글, p. 158; ‘한편 불상 대좌, 승탑에서도 위와 같은 지면 평좌의 구조와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봉암사 정진대사 원오탑 기단 면석 사리 공양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리를 모시기 위해 받치는 승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臺, 연꽃이나 구름가운데 솟아있는 불상이나 불사리를 모신 대를 표현하기 위한 받침구조가 그것이다.’ 강병희, 『고려전기 사회변동과 불탑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미술사학』 23, 2009, pp. 293~295.

복련과 하나의 돌로 조성하였다면, 9세기 중엽부터는 각각 별도의 석재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하대 대좌받침의 높이는 더욱 높아졌고, 높아진 대좌받침의 면석에는 안상 안에 사자, गरु빈가 등 각종 부조를 새겨 넣어 화려함을 더했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불좌상이 바로 867년 취서사 비로자나의 대좌이며, 비록 명문은 없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이 시기에 해당한다(도 17).<sup>29)</sup> 그 이외에도 경남 창원의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역시 고임석과 별석으로 조각된 대좌받침, 대좌받침의 안상 안에 새겨진 사자상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865년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도 별석의 기단석이 조성되어 있었겠지만 현재 남아있지 않으며, 중대 면석에도 부조가 없는데 이는 철이라는 특수한 재료로 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고임석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꽃이 등장하는 것 역시 이 시기 대좌의 특징이다(도 18).<sup>30)</sup>

흥미롭게도 9세기 중엽이후에 보이는 대좌의 특징은 승탑에서도 고스란히 찾아볼 수 있다. 남겨진 승탑 중 가장 이른 예로 알려진 844년 傳염거화상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탑의 기단부는 불상 대좌와 형식이 일치한다(도 20). 통일신라 후기의 승탑이 이처럼 처음부터 완성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8세기 중엽부터 1세기 이상 기술이 축적되어 온 ‘삼단팔각’ 연화대좌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승탑의 기단부는 마치 불상의 대좌처럼 상·중·하대를 갖추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중대석의 상하폭도 길어지며, 중대석과 하대석 사이에 별석의 고임석이 등장하는 것도 동일하다. 대표예로 전남 화순의 쌍봉사 철감선사탑(868년경), 경북 문경의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883년)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선림원지의 886년경 弘覺禪師 승탑을 들 수 있다. 선림원지는 원래 역성사였으며, 인근에는 홍각선사가 역성사의 금당과 향사 등을 중창한 시기인 9세기 후반경에 제작된 傳 선림원 비로자나불좌상이 남겨져 있다.<sup>31)</sup> 흥미롭게도 이 불좌상의 대좌 역시 기본적으로 승

29) 정영호, 『취서사의 탑상과 석등』 『고고미술』 제7권 제4호, 1966, pp. 184~186.

30) ‘통일신라 때의 불상 대좌, 특히 좌불상의 대좌는 대부분 팔각원당식의 3단 대좌이다. 하대는 복련, 상대는 양련, 중대는 팔각 간석으로 4, 8각과 원으로 구성된 팔각원당형 대좌이다. 9세기가 되면 복련에 귀꽃이 달리고 양련에 화사한 꽃무늬가 있으며, 중대 간석에 안상문과 향로나 천부상 및 보살상들이 새겨져 섬약한 특징이 나타나기도 한다’(문명대, 『통일신라 불교조각사론』 『원음과 고전미 -통일신라 불교조각사 연구(상)-』, 예경, 2003, p. 22).

31) 문명대, 『선림원지 發掘調査略報告』 『불교미술』 10,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1, pp. 164~172; 문명대, 『선림원 본존불상 문제와 석비로자나불상』 『원음과 고전미』 한국의 불상조각 2, 예경, 2003, pp. 318~305.

탑의 기단부와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대좌의 이러한 변화는 승탑의 기단부와 동일한 흐름으로 전개됨을 입증해 준다.<sup>32)</sup>

#### IV. 맺음말 -불상과 대좌의 관계성-

이 세상에 대좌를 갖추지 않은 불상은 없다. 그런데 그 불상의 ‘대좌’는 과연 시대양식을 충실히 반영하는가? 바꾸어 말하면 불상과 대좌는 형식이나 양식의 변화 과정이 서로 병행하는가? 예상대로 불좌상의 대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 및 양식이 달라지며, 이러한 변화는 불상양식의 흐름과 대체로 일치한다. 불상의 대좌는 어쩌면 불상보다 더 정확히 시대양식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시작은 석굴암 본존상 대좌이다. 석굴암 본존 대좌는 통일신라 불상의 대좌 중에서 중대가 팔각형을 이룬 가장 이른 예라는 점도 그렇지만 팔각의 모서리마다 별석으로 隅柱를 세우고, 그 안에 다시 팔각기둥이 있는 입체적인 독특한 구성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석굴암 본존에서 시작된 8세기 중엽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가장 큰 특징은 중대석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 시기 중대석은 각 면의 가로와 세로가 거의 비슷한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이룬다. 유사한 특징을 지닌 8세기 중엽경의 보리사 석불좌상, 766년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좌상 역시 같은 범주에 들 수 있다.

흥미롭게도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불상의 대좌는 중대의 높이가 확연히 높아지고, 간혹 중대 안상이 새겨지거나, 안상 안에 각종 부조가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대략 중대의 높이가 높으면서 부조가 없는 경우는 8세기후반으로 편년지을 수 있으며, 안상이나 우주가 조각된 면석에 부조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그보다 늦은 8세기말~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8세기 후반~9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석불좌상의 기년작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8세기 중엽 불좌상의 대좌와 9세기 중엽 불좌상의 대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32) ‘신라하대 승탑의 기단형이 모두 불상대좌의 구조에서 착안된 점은 승탑의 탑신을 불상대좌 위에 안치함으로써 부처와 고승을 대등하게 존승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한다(소재구, 『신라하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p. 64; 소재구, 『신라하대 석조미술양식 연구방법론』 『미술자료』 62, 1999, pp. 27~50).

이후 9세기 중엽부터는 중대 높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중대와 하대 사이에 팔각의 고임석이 덧붙여지면서 앞 시기의 대좌와 구분 지워진다. 아울러 하대에서 분리된 하대받침의 높이가 높아지고, 역시 안상 안에 각종 부조가 새겨진다. 9세기 중엽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중대 고임석, 하대받침의 분리 역시 결국 대좌의 높이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동화사, 도피안사, 취서사의 불좌상 등을 대표 예로 꼽을 수 있다. 9세기 중엽에 정형화된 이러한 대좌형식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고려 전기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진다. 예컨대 고려 전기 원주지역 석불좌상의 대좌에서도 양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형식을 찾아볼 수 있다.<sup>33)</sup> 이처럼 고려시대까지도 통일신라 후기의 대좌형식을 그대로 계승한 예가 있기도 하지만, 고려시대 불상의 대좌는 지역마다 다양한 형식의 대좌가 등장하여 통일신라 후기처럼 통일성이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좌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높이이다(도 19). 물론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대좌의 절대적인 높이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불상 대비 대좌의 높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통일신라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 때 대좌의 높이를 높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중대의 높이이다. 중대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중대 면석은 정사각형에서 점차 위아래가 긴 직사각형으로 변해갔으며, 중대와 하대 사이의 고임석을 둔다든지, 하대 복련석과 그 아래 받침을 별석으로 제작하면서 대좌의 장식성이 강해지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이다.

끝으로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지고 장식성이 강해지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단순히 미의식이나 취향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흐름이 너무 일관적이다. 불상과 같은 종교조각이 예배상과 예배자와의 교감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대좌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경향에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정확한 이유를 판단하기는 무척 어렵다. 특히 불상을 조각하는 조각가는 예배상과 예배자와의 관계를 세심하게 염두에 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불전 내 예배자를 배려한 의도였을 것임에 틀림없다.<sup>34)</sup> 그러나 현재 통일신라 당시의 불전이 전하지 않는 상

33) 임영애, 『고려 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교류로 본 한국불교조각』, 학연문화사, 2008, pp. 135~166; 이들 고려전기 석불좌상 대좌와 9세기 중엽에 정형화된 대좌 형식과 차이는 중대의 가로 폭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고려전기 불상 대좌의 경우 중대의 가로 너비가 넓어져 상·하대의 가로 폭과 큰 차이가 없다.

34) 성스런 불상에 대한 경외심을 더 높이기 위해, 성스런 부처의 세계와 속인의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 불단 위 높은 위치에 불상을 봉안했던 조선후기의 경우(송은석, 『조선 후

황에서 이를 알아차리기는 불가능해 보인다.<sup>35)</sup> 아울러 비교적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는 중국 불좌상의 대좌와는 달리 통일신라에서 ‘삼단팔각’ 연화대좌가 특별히 애용되었던 이유도 함께 모색해야할 문제이지만 이 역시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 밝힌 것처럼 대좌는 불상의 그 어떤 속성보다 시대적 특징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현재 대좌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석불좌상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대좌 형식 및 양식의 차이를 두고 단선적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줄 세우기가 통일신라 불교조각사 연구에 어떠한 의미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역시 회의적일 수 있다. 앞서도 밝힌 것처럼 이 글의 목적은 석불좌상의 전형적인 대좌인 ‘삼단팔각’ 연화대좌가 언제 통일신라에 유입되었으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일관되는지, 아울러 우리가 지금까지 설정해놓은 불상 양식의 흐름과 일치하는지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큰 흐름 이외에 상대와 하대의 연꽃이 어떤 모양인지, 안상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또 중대 면석의 부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는 처음부터 이 글에서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불상 대좌 변화의 대체적인 윤곽잡기를 통해 향후 필자가 추구하려 하는 통일신라 불교조각 연구의 기초 작업 중 하나로 삼으려 하였으며,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광배나 대좌의 중요성을 점검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려는 것이 필자의 의도였다.

[논문투고일 : 8월 9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23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25일]

---

기 불전 내 의식의 성행과 불상의 조형성』 『미술사학연구』 제263호, 2009, pp. 71~97)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

- 35) 통일신라 불전이 어떠한지 남겨진 자료를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석굴암의 평면 배치를 통해서 적어도 경덕왕 때에는 불상 주위를 돌며 예배하는 의례가 금당내부에서 행해졌을 것이라는 점, 또 불전 내 마루가 등장하기 이전 대부분 塼이었고 불전 내 중심부에 낮은 석조 불단을 조성하고 그 가운데 불상을 봉안하였을 것이라는 점 정도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강근,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미술사학』 12, 1998, p. 66)를 참조하기 바란다.



<도 1> 傳 황복사 아미타불좌상, 706년경, 전체높이12.2cm, 국립중앙박물관(『한국의 국보』, 문화재청, 2007, p. 276)



<도 2> 傳 황복사 아미타불좌상의 대좌



<도 3> 黃海伯等 龕像, 북제 557년, 높이55cm, 오사카시립미술관  
山口컬렉션(『世界美術全集』東洋編 3 三國·南北朝, 東京:小學館, 2000, 圖 253)



<도 4> 석굴암 대좌, 8세기 중엽, 경주시(사진 임영애)



<도 5> 석조불좌상, 북제 6세기 후반, 높이77cm(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編 2, 東京: 吉川弘文館, 1995, 圖443c)



<도 6> 석조불좌상, 북제 6세기 후반, 높이64.5cm, 하버드대학 아서 색클러박물관 (松原三郎, 『中國佛教彫刻史論』 圖版編 2, 東京: 吉川弘文館, 1995, 圖461a)



<도 7> 석조불좌상, 8세기 중엽, 산서성 芮城縣 風陵渡東章, 예성현박물관(『宮廷の榮華-唐の女帝 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東京國立博物館, 1998~1999, 圖13)



<도 8> 석조불좌상, 703년, 산서성 芮城縣 風陵渡東章, 예성현박물관(『宮廷の榮華-唐の女帝 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東京國立博物館, 1998~1999, 圖11)





<도 11> 경주 남산 보리사 석조불좌상, 경주시(사진 임영애)



<도 12> 영지 석조불좌상, 경주시 외동면 괴릉리(사진 임영애)



<도 13>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경남 창녕(사진 임영애)



<도 14>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사진 임영애)



<도 15> 취서사 석조불좌상 대좌, 867년, 경북 봉화(사진 김동하)



<도 16>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대구 동화사(사진 임영애)



<도 17>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립중앙박물관(사진 임영애)



<도 18>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865년, 강원도 철원(사진 임영애)



<도 19> 8~9세기 불좌상 삼도(\*하대받침을 확인할 수 없는 예가 있어 하대의 하단을 기준으로 배치. 문명대, 『한국조각사』, 열화당, 1980, 그림 61, 95를 재구성)



<도 20> 傳 염거화상 승탑, 국립중앙박물관(사진 임영애)

## [참고문헌]

### 1. 기본사료

- 『三國史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T1024 第19卷

### 2. 단행본 및 논문류

- 강병희, 「고려전기 사회변동과 불탑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미술사학』 23, 2009.
- 광동석, 「뚝섬출토 금동선정인여래좌상의 국적 문제 -동경예술대학소장 금동여래좌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고역사학지』 15, 2000.
- 김리나, 「굴불사지 사면석불에 대하여」 『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97.
- 김리나, 「백제초기 불상양식의 성립과 중국불상」 『백제연구총서』 3, 1993.
- 김복순, 「義湘과 皇福寺」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7, 1996.
- 김재원, 「경주 구황동 석탑 출토 사리기 및 불상」 『한국과 중국의 고고미술』, 문예출판사, 2000.
- 김화영, 「한국 불상대좌형식의 연구(2)」 『史學志』 Vol.4 No.1, 1970.
- 김화영, 「한국불상 대좌형식의 연구 -금동불을 중심으로」 『이홍직박사회갑기념논총』, 1989.
- 문명대, 「선림원 본존불상 문제와 석비로자나불상」 『원음과 고전미』 한국의 불상조각 2, 예경, 2003.
- 문명대, 「선림원지 發掘調査略報告」 『불교미술』 10,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1.
- 문명대, 「신라 하대 편년 비로자나불상」 『원음과 고전미, 통일신라 불교조각사 연구(上)』, 예경, 2003.
- 문명대, 『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언, 1999.
- 소재구, 「신라하대 석조미술양식 연구방법론」 『미술자료』 62, 1999.
- 소재구, 「신라하대와 고려시대 승탑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 송은석, 「조선 후기 불전 내 의식의 성행과 불상의 조형성」 『미술사학연구』

- 제263호, 2009.
- 윤선태, 「신라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2000.
  - 이강근, 「조선후기 불교건축의 전통과 신조류」 『미술사학연구』 제202호, 1994.
  - 이강근,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12, 1998.
  - 이홍직, 「慶州 狼山東麓 三層石塔內 發見品」 『韓國古文化論及』, 을유문화사, 1954.
  - 임영애, 「고려 전기 원주지역의 불교조각」 『교류로 본 한국불교조각』, 학연문화사, 2008.
  - 임영애, 「곤륜산, 수미산 그리고 삼단팔각 연화대좌 -삼단팔각 연화대좌에 담긴 상징」 『강좌미술사』 34, 2010.
  - 정병삼,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 정영호, 「취서사의 탑상과 석등」 『고고미술』 제7권 제4호, 1966.
  - 주경미, 「한국불사리장엄에 있어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의의」 『불교미술사학』 2, 2004.
  - 주수완, 「皇福寺 全金佛立像 연구」 『불교미술사학』 4, 2006.
  - 최성은,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불좌상 소고」 『신라사학보』 16, 2009.
  - 하일식, 「창녕 관룡사의 石佛臺座銘과 <觀龍寺寺蹟記>」, 『한국고대사연구』 12, 1997. 10.
  - 한정호, 「慶州 九皇洞 三層石塔 舍利莊嚴具의 再照明」 『미술사논단』 22, 한국미술연구소, 2006.
  - 洪大韓, 「統一新羅 石佛臺座의 造形研究 I」 『文化史學』 19, 2003.
  - 洪大韓, 「統一新羅 石佛臺座의 造形研究 II」 『文化史學』 21, 2004.
  - 황수영, 「慶州 傳皇福寺址의 諸問題」, 『고고미술』 97, 1968.
  -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景仁文化社, 1982).
  - 梅原末治, 「韓國慶州皇福寺塔發見の舍利容器」 『美術研究』 156, 1950.
  - 朴亨國, 「日本における七獅子蓮華座の受容と變容」 『佛教藝術』 228, 1996.
  - 淺井和春, 「皇福寺址三層石塔發見の二体の金銅佛像」 『佛教藝術』 188, 1990.
  - 『宮廷の榮華-唐の女帝 則天武后とその時代展』, 東京國立博物館, 1998~1999.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보수·정비 보고서』, 2010.
  -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굴불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6.